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 또 지연

〈광주송정~목포〉

전남도 “무안공항 경유”·기재부 “지선 신설”... 갈등 평행선

기재부 적정성 개검토 용역 발주... 완공 2017년→2020년→?

내달 승정~고막원 우선 착공

2020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완공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전남도와 기획재정부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최근 기재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무안공항을 경유한 광주~목포 간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호남고속철은 2006년 기본계획 고시에서 2017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9월 고시로 광주송정~나주 고막원 구간은 2018

년까지, 나주고막원~목포 구간은 노선 확정 후 착공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번 무안공항 경유 문제로, 2020년은 물론 그 이상 완공이 연기될 전망이다.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기획재정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호남고속철 2단계 중 광주송정~나주고막원 구간을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전남도와 기재부는 의견이 일치된 구간(광주송정~나주고막원)을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지난해 9월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주고막원~목포 구간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4년 타당성 조사를 통해 2조4731억원을 들여 나주를 포함한

77.6km(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기존선 33.7km, 신설 43.9km)를 설치하는 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는 광주송정~목포 기존선(66.8km)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에는 16.6km의 지선을 신설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투입 예산은 1조3427억원으로, 국토부와 전남도가 제시한 안에 비해 1조1304억원이 축소된 것이다.

이 같은 기재부안에 대해 전남도는 기존 노선의 단순 개량은 호남고속철이 저속철(시속 200km 이하)로 전락하고, 종착역 이월화(무안공항, 목포)에 따라 운영비도 연간 50억원 이상 소요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 서로 간격을 줄여야 한다”며

“비용편익비(B/C)가 0.3에 불과하고, 고속철이 다닌다고 해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는 (노선 갈등으로) 완공이 연기될 수밖에 없으며, 용역 발주와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발끈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미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사업 지연’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나주고막원~무안공항~목포 구간을 최소한 2018년 착공해야 하는데, 용역 발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용역 결과에 따라 노선을 합의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공사기간, 시운전 등을 감안하면 3년 이상 연기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주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18호 태풍 '차바(CHABA)'가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지역을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안의 파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태풍은 5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250mm 이상의 비를 뿌린 뒤 동해남부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태풍 '차바' 북상... 남해안 최고 250mm 큰 비

오늘 새벽·오전 최대 고비

제18호 태풍 '차바(CHABA)'의 북상으로 광주·전남지역에 5일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5일 새벽과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인 차바(중심기압 940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47m/s)가 서귀포 남쪽 약 20km 부근 해상에서 북진함에 따라 5일 새벽부터 남해안 지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5일까지 동부 남해안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의 광주·전남지역에는 50~150mm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의 진로와 가까운 남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3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정도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거문도와

초도, 남해서부 먼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차바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북진하면서 5일 새벽 제주도 부근으로 북상한 후, 낮에 남해안을 스치면서 동해남부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태풍은 다소 약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예상진로와 강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리!

- 일시: 10월 16일(일) 9:30~
- 장소: 모교 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알립니다

가을... 두 바퀴의 자유

'2016 Green 자전거 축제'

23일 영산강 일원 초·중생 백일장도

영산강변의 풍광을 즐기고, 가족애를 나누며 남도의 가을을 체험하는 '2016 자전거 이용 활성화 Green 자전거 축제'가 10월 23일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와 승촌보, 영산대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자전거축제는 크게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45km)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25km) ▲백일장 대회(초등부, 중등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전부분 참가비 무료)

자전거대행진 행사는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시작해 서창교~승촌보~나주대교~영산대교~승촌보~서창대교~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 구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백일장 행사도 곁들여 지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가족과 함께 늦가을 영산강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일 시: 2016년 10월 23일(일) 오전 9시
- 장 소: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중 목: 자전거대행진, 백일장대회
- 참가비: 전 종목 무료
- 주 최: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 주 관: 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광주광역시자전거연맹,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 후 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문 의: 자전거행진 / 062-376-3112(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백일장대회 / 062-220-0541(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光州日報社

광주 예술인 3명 중 1명 연 소득 999만원 이하

"문화전당 기획의 장 안 돼"

광주지역 예술인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중 5명은 생계유지를 위해 예술 활동 외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 예술인 80%이상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소통이 부족해 기획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민인철 책임연구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에서 '2016년 광주지역 예술인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글을 통해 지역 예술인 대상 유효성문지 219부를 분석한 면접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민 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들의 연간 소득은 999만원 이하가 29.7%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대 보험 가입률도 40.6%에 그쳤다.

지역 예술인들의 주요 수입원(1순위 기준)은 작품 출연료 26.0%, 급여 25.1%, 작품판매료 12.8%, 강의 7.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개인창작 공간 소유율은 41.1%에 불과했으며, 소유 형태는 임대·월세 51.1%, 자가 23.3%, 임대·전세 20.0%, 무상임대 5.6% 순으로 나타났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파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